



01 호주관광청 '우영우 마케팅'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돌풍에 고래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호주관광청이 경이로운 고래의 모습을 쉽게 목격할 수 있는 장소들을 공개했다. 퀸즐랜드 해변에서는 수컷이 부르는 구애의 노랫소리를 듣거나, 고래가 물살을 가르며 물줄기를 뿜어내는 모습도 볼 수 있다. 서호주 남해안은 고래를 볼 수 있는 최적의 장소다. 혹등고래와 남방긴수염고래는 6월 초부터 오거스타 플라더스 베이에 출몰한다. 호주 가장 남쪽 태즈메이니아섬 호브트 교외의 타루나 지역 사람들은 더웬트 강에 서식하는 수많은 고래 소리에 잠을 이룰 수 없다고 한다. 태즈메이니아의 이스트 코스트는 여전히 매년 이동하는 고래를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다.

02 관광공사, 태국에서 한류 행사

한국관광공사는 지난달 방콕 대형 쇼핑몰 '퓨처 파크 랑싯'에서 '2022 러브 코리아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아이돌 그룹 갓세븐의 태국인 멤버 뱌뎀의 온라인 팬 미팅과 K팝 커버댄스 콘테스트를 비롯해 한식 체험행사, 태권도 시범 공연 등 한국 문화를 활용



한 프로그램이 전면 배치됐다. 이밖에 태국 유명 인플루언서 DJ 북꼬와 걸그룹 픽시가 한국 여행 경험담을 전했고, 태국에서 방송 중인 한-태 아이돌그룹 결성 프로그램 '세븐 스타스' 출연진 공연도 선보였다. 현장에는 한국 항공사, 여행사,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스를 마련해 한국 관광을 홍보하고 여행 상품 등을 판매했다. 이틀간 행사에는 약 1만여 명이 태국인이 다녀갔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 4월 시증면제협정 재개 이후 태국 방문객은 월평균 114% 성장했다.

03 싱가포르 푸드 페스티벌 열려

제29회 싱가포르 푸드 페스티벌(SFF)이 싱가포르 현지에서 열렸다. 9월 11일까지 열린 이번 푸드 페스티벌은 직접 현장 축제에 참석하기 어려운 미식가를 위해 온라인 행사도 병행됐다. 팬데믹 이후 처음 대면 행



사로 복귀하는 이번 페스티벌은 '진정한 미식가를 위한 축제'라는 주제 아래 싱가포르 음식을 소재로 한 워크숍, 투어, 제휴 레스토랑의 한정판 메뉴 출시 등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됐다. 특히 20곳 넘는 식당에서 9코스 디너를 즐길 수 있는 '페스티벌 빌리지' 프로그램이 핵심이다.

04 태국 송끄란 축제-보령머드축제 교류 협약

태국 송끄란 축제와 지난해 중국 하얼빈 빙등 축제와 함께 아시아 3대 축제로 선정된 충남 보령머드축제가 상호 교류·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태국관광청과 보령 축제관광재단은 지난 달 교류 협약을 맺었다. 협약식에는 김동일 보령시장과 유타삭 수파손 태국 정부관광청장, 정강환 세계축제협회 아시아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태국 송끄란 축제는 참가자들이 서로 물을 뿌리거나 물총 등을 쏘며 즐기는 축제로, 매년 4월 13~15일 태국 전역에서 열린다.



05 해남 오시아노서 '펫 캠핑'을...관광공사, 전용 구역 운영

한국관광공사는 지난달 해남 오시아노 오토캠핑리조트 일원에서 34개의 펫 전용 캠핑장(댕댕당당 캠핑존)과 반려견 전용 해수욕장(댕댕당당 비치)을 운영했다. 펫 캠핑 참가자들은 반려견 간식 만들기 체험, 펫티켓 퀴즈 프로그램 등 행사에도 참여했다. 현장에는 8명의 반려동물 전문 가이드를 배치했다. '서로를 배려하는 펫티켓'이라는 주제로 함께 산책하는 '해남에서의 특별한 동행'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펫티켓 교육을 받은 후 산책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정용문 관광공사 레저관광팀장은 "캠핑을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동반 캠핑 등 새로운 트렌드에 맞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06 뉴질랜드관광청, 청정 자연 속 액티비티 여행 소개

뉴질랜드관광청은 청정 자연 속에서 즐길 수 있는 액티비티 여행을 소개했다. 와이키토 지방의 작은 마을, 와이토모에는 푸른 초원 아래 동굴과 지하 수로가 마치 미로처럼 촘촘히 얽혀 있다. 와이토모에는 무려 약 3천만 년 전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하 석회암 동굴인 와이토모 반딧불 동굴(Waitomo Glowworm Cave) 천장에는 반짝이는 불빛을 뿜어내는 반딧불이 장관을 이룬다. 이곳에서는 지하에 흐르는 강인 '블랙 워터'를 튜브 등을 통해 통과할 수 있는 액티비티가 매력적이다. 인접한 로토루아에서는 원시림을 만끽할 수 있는 로토루아 캐노피 투어(Rotorua Canopy Tours) 투어가 핵심이다. 이곳에서는 전문 가이드와 함께 흔들다리를 건너며 약 250만㎡에 달하는 광대한 규모의 원시림을 둘러볼 수 있으며, 그 위를 집라인으로 날아다니며 희귀 토종 새를 관찰할 수 있다.





01 제주항공 "인천~울란바토르 노선 탑승률 80% 넘어"

제주항공의 인천~몽골 울란바토르 노선 취항 첫 달간 80%가 넘는 평균 탑승률을 기록했다.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은 제주항공의 첫 번째 한-몽골 정기노선이자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신규취항한 노선이다. 제주항공은 6월 29일부터 주 4회 몽골 노선을 운항을 개시해 한 달 동안 38편을 운항해 5천906명이 탑승해 82.2%의 탑승률을 기록했다. 지난달 제주항공의 몽골 노선 8월 예약률도 80% 중반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몽골은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며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다.



02 신생항공사 에어프레미아, 동남아 취항

신생 항공사 에어프레미아는 국내 도입 예정인 2호기 기체 도장을 완료하고 운항 준비를 마쳤다. 2호기는 2018년 생산돼 노르웨이저안항공에서 1년 반가량을 운영한 보잉 787-9 기체다. 에어프레미아는 2호기를 동남아와 일본 등 중-단거리 노선에 투입하고, 기존 1호기를 미주 등 장거리 노선에 투입할 계획이다. 신규 취항도 준비 중이다. 10월 인천~베트남 호찌민과 인천~로스앤젤레스 노선을 운항하고, 지난달 말부터 11월 12일까지는 튀르키예(터키) 전세기를 운항한다. 에어프레미아가 7월 취항한 인천~싱가포르 노선의 이달 평균 탑승률은 80%에 달한다고 한다. 에어프레미아는 곧 3호기도 추가 도입해 총 3대의 항공기를 운영할 방침이다.

03 사우디아항공, 32년만에 한국 재취항

사우디아라비아 국적기인 사우디아항공이 32년 만에 한국 노선에 재취항했다. 1945년 설립된 중동 최대 항공사 중 하나인 사우디아항공은, 과거 중동 건설 붐 때 대한민국 건설 역군들을 수송했다. 사우디아항공은 제다~리아드~인천 노선에 매주 화, 목, 토요일 주 3회 항공편을 운항한다. 오전 제다에서 출발한 첫 항공편은 리아드에서 짧게 경유한 뒤 오후 7시 50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가 약 2시간 뒤에 인천공항을 출발한다. 같은 날 오후 9시 40분 인천공항을 출발한 항공편은 다음 날 리아드에 오전 2시 10분에, 제다에는 오전 4시 35분 도착한다.



04 인터컨티넨탈, 야외 펍 '파르나스 가든' 운영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는 '음악과 함께하는 야반 가든'을 콘셉트로 10월 초까지 호텔 앞 야외 1층 공간에서 캐주얼 펍인 '파르나스 가든'을 선보인다. 운영 시간은 오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호텔 셰프의 노하우가 담긴 특별한 안주 메뉴와 맥주와인 등을 만날 수 있다. 매출 일부는 강남구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기부한다.

05 서울드래곤시티, 메인 로비에 8m 조형물 '드라코' 설치

서울드래곤시티는 메인 로비에 8m 크기의 캐릭터 조형물 '드라코'(DRAKO)를 설치해 캐릭터 마케팅 강화에 나섰다. '드라코'는 용이 되고 싶은 아기 요정 콘셉트로, 서울드래곤시티 건물이 용 모양을 모티브로 건축된 것처럼 드라코도 용의 뿔을 형상화한 고깔모자를 착용해 모든 고객에게 행운을 선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호텔 측은 설명했다. 한편 서울드래곤시티는 '드라코' 이외에도 다양한 콘텐츠로 MZ세대 공략에 나선다. MZ세대에게 익숙한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한정 패키지를 판매하며, 이색적인 체험형 콘텐츠로 구성된 서머 페스티벌 '서호페'를 진행한 바 있다.



06 밀레니엄 힐튼 서울, 40년 역사 담긴 '1983 애프터눈 티 세트' 출시

밀레니엄 힐튼 서울이 연말 운영 종료를 앞두고 호텔의 시그니처 아이템으로 구성된 '1983 애프터눈 티 세트'를 출시했다. 개관연도를 의미하는 '1983 애프터눈 티 세트'는 그동안 색다른 테마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실란트로 델리의 마지막 애프터눈 티로 고객들이 40여 년의 호텔 역사가 담긴 티 푸드와 함께 추억을 그릴 수 있도록 했다. 1983년부터 지금까지 호텔의 지난 발자취를 돌아볼 수 있도록 셰프들의 정성스러운 손길을 거쳐 온 시그니처 메뉴를 만나볼 수 있다.